

### 2008 새해설계 ②

##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대장 염정자

### 교통캠페인·청소년 지도활동에 최선 다해

#### 봉사활동에 나섰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쉬움

포천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제2대 대장으로 2005년3월30일에 취임하여 포천시의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와 공모하여 동장군축제와 여섯꽃 축제 등 포천의 대표적인 축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염정자(49·사진) 대장은 "각 지역대의 특성을 살려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포천, 신북, 내촌, 가산, 소흘, 일동, 관인, 군내, 영중 등 9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캠페인과 청소년 지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15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포천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조직으로 2002년도

에 출범하여 다양한 활동을 나서고 있다.

포천시에서 피복과 간식비를 면사무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떡을 판매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 관내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염 대장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큰 대회에 봉사활동에 나섰다 손님들이 떠나면서 수고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 영역이 기초질서 유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협조요청에 따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포천경찰서와 교통캠페인에 나

서 안전띠 착용, 정지선 지키기 등 시민질서 운동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범죄예방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평소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염 대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기사로 많이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며 "각 읍면동 지역대별로 순회하면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보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들에게 염 대장은 "새해에는 몸 건강하고 서로 협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웃는 모습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특별히 바랄 것이 없다"며 열심히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도 지금 하는 그대로 하고 싶다고 전하며 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

### 2월20일과 21일 고모저수지 일원 개최

포천시 소흘읍사무소(읍장 윤석희)와 노고산성정월대보름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임동호, 집행위원장 박상일)는 금년도에 개최하는 '제7회 노고산성정월대보름 축제'를 오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고모저수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들어갔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각종 체험행사별로 법정리를 지정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소품과 준비물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준비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모든 행사의 종류별로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각급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희 소흘읍장은 "이번 축제

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놀이와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축제기획과 연출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포천시는 물론 경기북부,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 예술축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소흘읍사무소와 노고산성정월대보름축제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하는 제7회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를 오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고모저수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들어갔다.

## 소흘읍 "설 맞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설 연휴기간 중 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대책 추진

포천시 소흘읍사무소는 설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설 연휴기간 중 완벽한 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다른 지역의 수범이 되고 있다.

소흘읍은 읍 직원들을 비롯하여 소흘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상호), 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조계영), 농업경영인회(회장 엄두용) 등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형결연운동을 4일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송우시가지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아울러 읍사무소에서는 그동안 관내 주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및 장기간 방치된 대형폐기물과 불법광고물들을 소흘읍농업경영인회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제히 수거(약 5톤)하여 포천시자원재활용센터로 이관, 처리했다.

또 각 마을별 노년회 및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진입로 및 마을회관 주변에 대해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술선 참여했다.

한편, 연휴기간 중(2.6~2.10)의 시가지 청소대책으로는 날짜(요일)별로 이장협의회(33명)의 협조와 함께 가로환경미화원 및 일시 사역인부를 긴급 배치하여 매일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수거대행업체인 태성크린(대표 김성태)과 협의하여 6일과 9일 2일간에 걸쳐 시내지역과 국도변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연휴기간중 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자 상환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해 하는 등 '감동 주는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소흘읍사무소는 설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설 연휴기간 중 완벽한 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다른 지역의 수범이 되고 있다.

## 2월20일 2천650만원 장학금 전달 계획

### 동천장학회 2008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동천장학회는 2008년 2월1일(금)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는 2007년도 사업실적보고와 2007년도 예산결산(안), 2008년도 사업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를 2008년 2월1일(금)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천장학회는 기존의 기금 5억원에 2006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총 6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천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8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으로 대학교 진학자 6명에게 각 200만원, 고등학교 진학자 13명에게 각 50

만원씩의 장학금과 대학교재학생 4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2천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장학금 지급 일정은 2월13일 까지 각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2월15일 장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0일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수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불우한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전국에서 으뜸 새마을 단체로 거듭날 터

### 2008년도 군내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연시총회

포천시 군내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이재돈, 홍인숙) 정기총회가 29일 군내면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추진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새마을 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5년간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해온 유진숙 전 군내면 부녀회장에 대한 퇴임식이 함께 있었다.

유진숙 전 군내면 부녀회장은 시부모와 시할머니를 봉양하면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온 효부로서 퇴임을 하더라도 새마을 가족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겠다고 새로 선임된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더욱 발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취임한 홍인숙 군내면부녀회장과 이재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새마을 사업을



포천시 군내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가 29일 군내면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프로농업이 희망농업을 만든다'

###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교육 마쳐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농업인 2,856명을 대상으로 '프로농업인이 희망농업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2008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했다.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직된 교육장 분위기를 풀기 위한 '행복 체조'와 '스태미너 체조'를 선보여 농업인들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교육을 시작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교재를 안전 칼라로 제작하여 교육 효과를 배가 하였으며 자체강사 비율도 82%로 높여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농업인이 공감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총 13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당초계획보다 106%나 많은 수강생이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나타냈다. 특히 포도반 교육은 농업인들의 건의로 2개 지역에서 실시되어 150명 계획 대비 218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가해 교육욕망이 비좁을 정도였다. 이 밖에도 오이, 고추, 한우, 친환경농업반도 계획대비 130% 넘게 참석했다.

이응규 소장은 이번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데 주력하였다"고

이런 교육은 벼농사를 비롯한 기초농업반, 공반, 쌀 혁신단지반, 포도반, 인삼반, 오이반, 고추반, 친환경 농업반, 농업기계반, 한우반, 농업핵심리더반, 생활개선반 등 13개 과정으로 진행 되었으며 벼농사반은 3개조로 편성된 교관반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순회하며 실시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농업인 2,856명을 대상으로 '프로농업인이 희망농업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2008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기초농업반은 귀농인과 초보 농업인을 위한 교육으로서 농민사와 발농사의 기초부터 기본적인 병해충 방제와 쌀소득 보전 직불금 등과 같이 농업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 주었다.

한편 생활개선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참석한 교육생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였으며 일동농협과 소흘농협, 관인농협은 분부기 등 고품을 제공하여 농업인으로부터 감사 받았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 2008년도 군내면 체육회 연시총회 개최

포천시 군내면 체육회(회장 차덕현) 정기총회가 체육회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군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군내면체육회에서는 지난 25년간의 부녀회 활동과 6년간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해온 유진숙 전 군내면 부녀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그동안 체육회의 노고 치하와 더욱 협력하여 군내면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김진태 신임 군내면장이 말했다.

한편 차덕현 군내면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7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과 체육회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2008년 한해에도 회원 모두가 단결하고 면민 체육대회 등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007년 연말결산 및 2008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 월빙 부사의(不思意) 논리(論理)와 명분(名分) 41

## '명분이 원론(原論)이라면 논리는 각론(各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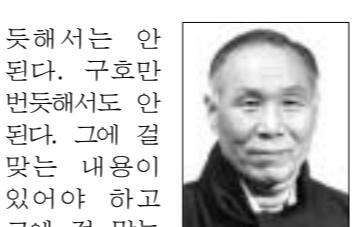
(權利)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리(義理)고 명분(名分)이고 원칙(原則)이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언제까지 버리거나 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기적(利己的) 욕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은 철저히 돈으로 다루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상주의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價値)와 이상(理想)을 먼저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合當)한 것만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권력이나 돈 이전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에 따른 '삶의 원칙(原則)'이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를 축으로 해 그 사이에 생기는 다양(多樣)한 스펙트럼(spectrum) 가운데 어떤 지점을 선택(選擇)해 행동한다. 이처럼 나라의 운영과 인간의 행동에는 먼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바다.

명분이 원론(原論)이라면 논리는 각론(各論)이다. 명분이 힘을 발휘하려면 논리가 제대로 서야 한다. 논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

면 명분은 그야말로 명분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명분이 키워드(key word)라면 논리는 그 키워드를 펼쳐주는 술어(語), 내용이다. 키워드는 하나의 낱말(單語)이다. 그 낱말과 단어의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논리이다. 논리는 그야말로 논리정연(整然)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다는 것은 패러다임(paradigm)과 신타그마(syntagma)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고 커질리티(causality)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다. 패러다임과 신타그마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은 주어(主語)와 술어(述語)의 관계(關係)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다.

'원론'만 무성해선 안 된다. '각론'이 잘 뒷받침해 줘야 한다. 원론이 집의 외형이라면 각론은 집의 내부요 장식이다. 외형만 번듯해서는 안 된다. 내부의 장식(裝飾)이 짜임새 있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내부시설과 장식에 있는 것이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시설과 장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명분도 마찬가지이다. 제목만 번



이규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뜻해서는 안 된다. 구호만 번듯해서도 안 된다. 그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만인(萬人)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름이 바로 서야 명분이 바로 서고 명분이 바로 서야 논리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로 선다'는 것은 정명(正名)을 말하는 것이다. 이름을 바로 불리고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름을 잘못 불리거나 그 풀이를 잘못하면 논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뜻이 포장 속에 숨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진의(眞意)를 감추고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가면(假面)을 쓰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양두구육의 가면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선조들이 논리와 명분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부시설과 장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